

광주시, 저상버스 60대 신규 도입·중증장애인 일자리 약속

시, 장차연 정책연구안 검토...새빛콜 법정대수 완비·운전원은 단계적 추진 장차연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 등 대부분이 형식적 답변...적극 시행” 촉구

광주시가 올해 안에 장애인 특별교통수단 법정대수 완비, 시내버스에 저상버스 60대 신규 도입, 중증 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 사업 실시 등을 약속했다.

광주지역 장애인 단체가 지난달 장애인의 날을 맞아 장애인 권리 보장을 위해 광주시에 제안한 정책안을 검토한 결과다.

이에 장애인 단체는 광주시가 개선의 의지가 가지고 있으나 수년전부터 지속적으로 요구해온 정책들 일부만이 추진되고 있다는 점에서 미흡하다는 지적을 하고 있다.

광주장애인차별철폐연대(장차연)에 따르면 광주시가 최근 ‘광주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정책요구안 검토결과’를 내놨다.

장차연이 지난달 23일 광주시에 장애인 이동권 보장과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 등 6개 정책 추진을 촉구한 것을 광주시가 검토하고 답변을 내는 것이다.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 중증장애인 일자리 마련, 장애인 탈시설 지원,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 장애인평생교육지원 조례 개정, 여성장애인을 위한 조례 제정 등 총 6개 정책 요구가 핵심 내용이다.

광주지역 장애인들은 특별교통수단(새빛콜)을 이용하기 위해 평균 17분, 최대 3시간 15분을 기다

려야 한다 점에서 차량 운전원 부족을 원인으로 지적하고 차량 1대당 운전원 2.5명을 보장하라고 요구했다.

검토결과 광주시는 올해 새빛콜 한대를 추가 확보해 법정도입대수(128대)를 맞추겠지만 운전원 확보는 예산상 단계적 추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단체의 지적에 따라 올해 22명의 운전원을 추가 채용하겠지만 차량 한대당 2.5명의 운전원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166명을 추가 채용해야 해 시의 재정상황상 힘들다는 것이다.

또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교통약자법)에 따라 시내 버스 노선의 2분의 1을 저상버스로 운영할 것과 휠체어 탑승 가능 시외버스 도입을 요구했지만, “아직은 어렵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광주시는 노후한 시내버스를 새로운 차량으로 교체하면서 올해 60대의 저상버스를 추가 도입을 밝혔을 뿐이다. 올해 170여대의 시내버스가 교체될 예정인 것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라는 것이 장애인들의 지적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재정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라 어쩔 수 없었다”며 “추경이 확보될 경우 저상버스 추가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광주시는 또 시외버스에서는 현재 광주지법에서 진행되고 있는 소송에서 “관할 내 고속 및 시외버스



광주지역 장애인들이 지난달 23일 광주시청 앞에서 장애인 권리 증진을 요구하는 집회를 열고 있다. <광주 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제공>

를 운영하는 사업자는 없으며, 광주시를 오가는 금호익스프레스는 전면에 등록된 업체”라는 입장을 그대로 유지했다.

광주시는 장기정 시장의 공약이기도 했던 ‘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 도입에 대해서는 반드시 진행할 의사를 밝혔다.

광주시는 ‘제2차(2023-2026) 장애인정책 종합계획’에 따라 4년간 100여명 규모의 권리중심 중증 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 사업 진행을 약속한 바 있다. 하지만 지난해 예산을 반영하지 못하면서 사

업 시행조차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광주시는 우선 오는 6월부터 을 참여자 10명 규모로 공공일자리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며, 내년부터 본격 실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연말 기준 장애인 고용률(3.8%)에 미치지 못한 광주지역 공공기관 장애인고용률(3.7%)에 대해서는 관련기관에 대해 수시로 독려해 5%대까지 끌어올리겠다고 약속했다.

장애인 자립을 위한 탈시설 지원에 대한 요구에

대해서는 광주시는 면밀한 검토를 통한 시행을 약속했지만 구체적인 안을 내놓지는 못했다는 것이 단체의 지적이다.

단체는 이밖에 장애인 평생교육 권리보장과 미성년 성폭력 피해 여성장애인 컴퓨터 지원 실시 등에 대한 요구에 대해서도 광주시가 법률제정과 타 시도 사례 등을 검토해 활성화를 약속할 뿐 정확한 실시 여부를 약속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광주시가 장애인들의 교육과 여성평등에 대해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지 않다고 비판했다.

하지만 단체는 광주시는 지난해 장애인친화 건강검진기관으로 ‘우리동네의원’이 선정됨에 따라, 1억 17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해 시설·장비 등 기준을 갖추고 올해 하반기부터 운영 개시해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을 보장하는 데는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기도 했다.

총사업비 72억원을 투입해 호남권역재활병원의 공공재활프로그램을 강화하고, 재활병원 내 공공어린이재활의료센터 건립사업도 오는 10월까지 마무리한다. 사업이 마무리되면 기존 소아뇌병동 8병상에 불과했던 것이 44병상으로 확대되고, 입원 대기기간도 2년에서 6개월로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는 점에어서. 정성주 장애인 집합위원장은 “광주시의 검토 결과가 대부분 ‘재정 부족’으로 힘들다는 등 형식적 답변만을 하고 있다”면서 “법적 의무사항인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과 공약인 맞춤형 공공일자리에 대해 적극적인 시행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정혜원 기자 hey1@kwangju.co.kr

‘지구시민’을 위한 일상의 환경 실천

동구 친환경자원순환센터, 체험·탐방 프로그램 운영

광주 동구 친환경자원순환센터(센터)는 환경보호를 위한 센터 체험·탐방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7일 밝혔다.

이날부터 운영하는 탐방 프로그램은 초등학생, 청소년, 성인 대상으로 차별화된 공간 안내와 분리배출 체험, 동구라미 온 포인트 이용, 수리수선 체험 활동 등 세대별 다양한 체험활동이 접목돼 진행된다.

탐방은 40분~1시간 20여분 동안 진행되며, 시민 누구나 온라인을 통해 접수하면 참여가능하고 무료다.

센터 공간 탐방은 단독주택 마을 쓰레기 문제해결을 위해 조성된 스마트재활용동네마당, 생애주기별 자원순환 교육을 위한 교육실과 활동공간인 햇살마루, 고쳐쓰고 오래 쓰는 친환경 생활 기술을 전파하는 수리수선실, 목공실 등을 둘러볼 수 있다.

참여자들은 공간탐방과 함께 캠페트회수기 및 종량제봉투배출함, 동구라미 온 어플 등 자원순환 포인트 모이기 체험과 현 옷을 활용한 손바느질, 드릴 기본 동작과 나사 풀기 등 체험 등을 선택해 세대별 체험프로그램도 참여할 수 있다.

센터 탐방은 매주 화요일과 토요일에 정기적인 안내 활동과 신청 요일에 맞추는 맞춤형안내활동으로 진행되며, 탐방은 지난 3월부터 양성된 탐방 안내자들이 맡아 진행된다.

센터는 평일과 토요일에 개방, 운영하고 있으며 1층 동구라미 제로웨이스트 카페, 2층 햇살마루 컴퓨터 시민의 공간으로 개방하고 있다.

탐방은 동구라미온 어플(donggurami.kr)과

네이버 블로그(blog.naver.com/zerowaste_gj)를 통해 신청 가능하며, 친환경자원순환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탐방프로그램을 담당하는 최진아팀장은 “놀이와 신체적 활동 경험은 일상의 환경실천을 이끌어내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1시간의 탐방을 통해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지구 시민으로 삶의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3월 개관한 센터는 동구라미 환경교실 강사양성, 수리수선 하루강좌, 자원순환 동구라미 가게 1호 운영, 자원순환 교육 및 사업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김다인 기자 kdi@kwangju.co.kr

산수2동, 경로당 13곳 어르신에 ‘효도밥상 꾸러미’

광주 동구 산수2동은 동 주민자치회(회장 박태상)와 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장 김정숙)의 도움으로 관내 경로당 13곳의 어르신들을 위한 효도 밥상 꾸러미 전달식을 개최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5월 가정의 달과 어버이날을 맞아 이웃사랑 나눔 실천사업 일환으로 마련됐다.

산수2동 주민자치회에서 소고기와 반찬 재

료를 후원했으며,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회원들이 자발적으로 나서 반찬을 만들었다.

김효열 산수2동장은 “가정의 달을 맞아 이웃 사랑을 실천하고자 주민들과 뜻을 모아 이번 행사를 준비하게 됐다”면서 “늘 도움을 주시는 주민자치회와 지사협 위원님들에게 감사드리고, 어르신들 모두 항상 건강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지역아동센터광주지원단, 교육프로그램 우수사례집 발간

지역아동센터광주지원단(단장 최강남)은 ‘2024년 교육프로그램 우수사례집 발간 기념식’을 개최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사례집은 현장에 근무하는 종사자들의 요청에 의해 제작됐고, 교육프로그램과 관련된 계획서, 프로그램 일지, 평가방법 등의 구체적 내용을 서로 공유해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담겼다.

우수 사례집 발간에는 꽃동산지역아동센터, 반딧불이지역아동센터, 서남지역아동센터, 서산지역아동센터, 소나무지역아동센터, 우성지역아동센터 등 6곳의 지역아동센터가 참여했다.

최강남 지역아동센터광주지원단장은 “조사연구

사업의 일환으로 마련된 이번 교육프로그램 우수사례집이 우리 광주 지역아동센터 모두의 발전과 평가 준비에 도움이 되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선뜻 프로그램을 공유하고 수차례 논의해가며 발간 및 편집으로 도움을 주신 발간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고 말했다.

한편 지역아동센터광주지원단은 지역사회의 아동돌봄의 대표 시설인 지역아동센터를 지원하는 곳으로 지역 내 돌봄이 필요한 아동이 있다면 각 구청, 인근 행정복지센터 또는 집 근처 지역아동센터에 문의하거나 지역아동센터 광주지원단(062-522-9976)으로 문의하면 된다. /정병호 기자 jusbh@

함께하는 100년 동행

서광주농협

농업인·고객·지역사회와 함께 농업의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고, 더불어 사는 밝은 미래를 만들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NH 국민은행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꼭!

조회, 송금, 결제, 대출 그리고 금융비서까지!
전국 3,000여 개 하나로마트에서 꼭 바로 바로 확인까지 꼭!

zgm
zgm.the pay 카드

- 비대면 발급전용 상품
- 국내 해외 전 가맹점 10% 할인
- N-페이 온라인 결제 1.7% 할인
- 10대 페이 온라인 결제 1.2% 할인
- 전월 실적 제한없음

(우) All NEW 리치하우스 가정종합보험 (무배당)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화재 피할 수 없어도 대비해야 합니다

임시거주비(숙박비+식비) 하루 20만원(일 이상 90일 한도) 한도 실손보장(해당 특약 가입 시 월 5만원으로 만기 시 89% 환급 (매월 변동 가능. 공시율 2023년 6월 기준)

햇살론
열심히 사는 사람들을 위한 따뜻한 금융

저신용자, 저소득자 서민(사업자 및 근로자)을 위한 대출, 개인신용등급에 따라 대출한도 차등 적용

서광주농협에서 더 편한 환전·해외송금을 맡아다

환전부터 해외송금까지 수수료 우대 적용

본점 | 광주광역시 서구 죽봉대로 107(광천동) TEL. (062) 362-8400~6 FAX. (062) 362-8407

용 산 지 점 062)526-0222~3	유 동 지 점 062)512-1984~5	유 덕 지 점 062)373-3235~6	운암백산지점 062)529-5335~6	동림하나로지점 062)531-7745~6
치 평 지 점 062)381-8212~3	동 립 지 점 062)513-8521~3	동 운 지 점 062)528-2640~2	빛 고을로지점 062)531-1213~5	로컬푸드(시청) 062)364-8400
쌍 촌 지 점 062)381-6551~2	운 암 지 점 062)527-3295~6	배 들 지 점 062)381-1971~2	양동센터지점 062)361-4472~4	유덕하나로마트 062)373-3235
화 정 지 점 062)372-0421~3	운 천 지 점 062)371-2772~3	상 무 동 지 점 062)372-3741~2	기아자동차지점 062)385-4977~8	애니마트동림점 062)511-2901~3

지역대표 금융기관 서광주농협